

# Morning Meeting Brief

## Commodity

### 아직까지도 불안한 국제유가

- 유가 하락 배경으로는 1) 원유수요 회복 불확실성, 2) OPEC+발 공급확대, 3) 미국의 원유생산량 증대 가능성, 4) 콘탱고 심화 등이 있음
- 단기적으로 국제유가의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나 유가가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라는 기존의 뷰를 유지
- 하지만 유가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의해야

김소현. sohyun.kim@daishin.com

## 글로벌 전략

### 미국 증시, 9월 한 달간 조정 국면. 추가 하락 불가피

- 9월 미국 증시, '얇은 조정후 다시 오른다' 라는 기존 공식을 깨는 한 달. ESI, 8월 중순 이후 둔화+유동성 장세에 대한 투자자 기대 희석
- 조정 진입을 앞둔 고점 형성 징후(1.주가 측면, 2.매크로 변수 측면) 속출. 4가지 위기 점검 지표(VIX, MOVE, CVIX, Put-Call Ratio)도 점차 시장 불확실성 확대를 반영하며 재차 상승
- 현 미국 증시, 닷컴 버블 활황국면과 흡사한 국면. 9월 2일 고점형성 기준, 10월 7일 전까지 -15~-20% 조정 불가피
- 증시 하락폭 -15%(기준 지수: S&P500 3,044P, 나스닥 10,248P, 다우 24,735P) 상회시, 4Q를 염두에 둔 성장주 중심의 공격적 매수 전략 유효. 유망종목은 언택트 시대, 온라인플랫폼, 전자상거래, 홈엔터테인먼트 관련 14개 종목 관심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 대체투자

### 프롭테크 벤처 투자와 IPO 러쉬(rush)

- 프롭테크(PropTech)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부동산 산업에 4차 산업 혁명 기술들을 접목시킨 신산업 분야
- 벤처 투자 증가와 유니콘의 성장에 따라 IPO를 통한 투자 회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3년간은 1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IPO 증가
- 현재 상장이 예정된 기업들 중에서는 콘테크(Contech) 분야의 유니콘 기업인 프로코어(Procore)와 데스크탑 메탈(Desktop Metal) 주목

미래산업팀

## 산업 및 종목 분석

### SK 텔레콤: 작지만 소중한 가치들

- 투자이견 매수, 목표주가 350,000원으로 기존 대비 9% 상향. 그동안 반영해오던 큰 규모의 자회사들 뿐만 아니라, 작은 자회사들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이들의 가치를 반영한 기업가치 약 2조원 상향
- 작지만 소중한 가치들을 반영할 시점. 1) 나녹스: 클라우드 기반의 헬스케어 기업, SKT는 5.8% 지분 보유로 2대 주주. 2) IDQ: 양자암호의 선구자, SKT 68.1% 지분 확보
- 투자포인트: 1) 5G M/S 45.6%로 증가세. 실적 개선으로 2분기 영업이익의 턴어라운드 성공, 2) 배당상향 전망. 최소 기존 DPS 10천원 유지, 3) 자사주 취득, 4) 외인 순매수 전환

김희재. hoijae.kim@daishin.com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330,000원 유지
- 코로나19로 인한 원유수요 감소 및 유가하락으로 주력 계열사인 현대오일뱅크의 실적 정상화에는 좀 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유가하락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 및 Retrofit 관련 투자도 지연되고 있어 조선 및 글로벌서비스의 수주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
- 정상화의 속도는 지연되고 있으나, 2020년 1분기를 저점으로 현대오일뱅크의 실적은 2분기 흑자전환, 하반기 점진적인 회복 기대

양지환, jihwan.yang@daishin.com

---

# 아직까지도 불안한 국제유가

김소현 sohyun.kim@daishin.com

- 국제유가는 배럴당 36.76달러로 하루 만에 -7.57% 하락했다(9월 8일 기준). WTI와 Brent 선물 가격 모두 6월 이후 처음으로 40달러대를 하회했다.
- 유가 하락 배경으로는 1) 원유수요 회복 동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사우디 아람코의 10월 원유 공식판매가격(OSP) 인하(아랍라이트유 기준 전월대비 -1.4달러)는 원유수요 부진을 방증한다. 이후 아시아 정제업체들의 40%만이 원유를 추가 구입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최대 원유소비국인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 종료되었다는 점과 최대 원유수입국인 중국의 원유수입량이 2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는 점도 원유수요 회복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미국의 원유수요는 2019년의 85%까지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며, 원유정제시설 가동률은 8월 28일 기준 76.7%로 전년동기대비 -18.1%p를 하회한다. 반면,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8월 중국 원유수입량은 4,748만톤으로 전월대비 -10.9% 감소했다.
- 2) OPEC+발 공급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월 이후 OPEC+ 감산목표량은 기존 960만b/d에서 770만b/d로 총 190만b/d 감소했다. 여기에 이라크는 기존에 감산미이행분을 8~9월에 걸쳐 40만b/d를 추가 감산하기로 약속했으나 시간이 2달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Bloomberg에 따르면 8월 OPEC원유생산량은 전월대비 55만b/d 증가했다. 3) 미국의 원유생산량 증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걸프만을 통과한 열대성 폭풍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고 원유 생산시설들의 재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미완결유정 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베이커휴즈 시추 리그수가 8월초이후 상승전환해 생산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4) 원유선물시장에서 곤탱고도 심화되고 있다. WTI 12월물과 1월의 가격차이는 9월 8일 기준 4.27달러로 올해 5월 이후 최고치이다. 최근 VLCC 선박운임료도 하락해 원자재 트레이더들에게 차익거래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
- 단기적으로 국제유가의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나 유가가 완만하게 회복할 것이라는 기존의 뷰를 유지한다. OPEC+의 감산이 지속되어 국제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올해 4월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된다면 원유수요의 회복 속도는 더디더라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국제유가 Range를 기존 배럴당 30~48달러로 유지한다.
- 하지만 유가 하락 리스크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원유수요 회복 속도가 더딘 반면 원유재고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원유수요가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빨라도 내후년이나 가능하며, 원유수요 감소폭은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OECD 원유재고는 5월 이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다. 특히, 경제회복이 뚜렷한 중국의 경우 해안저장고에 5,000만배럴원유를 비축하고 있어 수요 개선이 유가 회복으로 이어지는 데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증시, 9월 한 달간 조정 국면. 추가 하락 불가피

### 9월 미국 증시, '얇은 조정후 다시 오른다' 라는 기존 공식을 깨는 한 달

- 경제와 정책 측면에서 1) 향후 경기를 가능할 수 있는 지표인 씨티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ESI)는 8월 중순 이후 둔화하며 향후 경기 불확실성을 자극하고 있고, 2) 교착상태에 빠진 5번째 경기부양책 규모는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점, 연준의 평균물가목표제 타겟팅에 대한 구체적 방안 발표 전까지는 기존 유동성 장세에 대한 투자자 믿음이 회복될 수 있어 9월 한 달은 미국 증시에 녹록지 않은 투자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이다.

### 9월 조정 진입을 앞둔 고점 형성 징후(1.주가 측면, 2.매크로 변수 측면) 속출

- 9월 진입 전부터, 미국 증시의 고점 형성 시그널은 여러방면에서 확인됐다. 주가 측면에서 1) 8월 넷째주, 과도한 유동성이 풀리며 역사적 신고가 경신(나스닥, S&P500)과 함께 오버슈팅 연출, 2) 일부 기술주(MAGAT)가 증시 전체를 끌어올리는 왜곡된 상승 흐름, 3) 8월 추가 상승을 차익 실현 계기로 삼은 빅테크(아마존, 애플) CEO의 스톡옵션 매각, 4) 올해 기술주를 견인했던 테슬라가 주가 상승을 틈 타 액면분할과 유상증자 추진, 유상증자 발표(9.1일)후 -34% 가까이 급락한 점이다.
- 위험자산 선호 여부를 가능할 수 있는 매크로 변수(달러, 유가)를 살펴봐도 1) 달러는 5월 중순 이후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8월 들어 92P 부근에서 약세가 제한되고 2) 유가는 9월 들어 배럴당 40달러를 하회하기 시작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

### 47지 위기 점검 지표도 점차 시장 불확실성 확대를 반영하며 재차 상승

- 9월 들어 위기 확산의 사전 시그널로 널리 사용되는 47지 지표(1. VIX, 2. MOVE, 3. CVIX, 4. Put-Call Ratio)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연준의 평균물가목표제 도입이 장기 저금리 기조의 토대를 마련하며 위험자산 선호를 지속시킬 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위기 점검 지표인 VIX는 9월 들어 30선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그외 채권과 외환시장의 공포지수(Fear Index)인 MOVE와 CVIX도 재차 9월 이후 상승하고 있는 큰, 미국 증시 변동성을 키울 주변 여건도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Put-Call Ratio(풋옵션 거래량을 콜옵션 거래량으로 나눈 비율)의 경우, 시장 변곡점 파악에 유용한 지표로 9월 8일 기준(0.57) 과매수권(0.6 이하)에 진입해 있다. 증시가 변곡점 범위에 들어가 있는 만큼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현 미국 증시, 닷컴 버블 활황국면과 흡사한 국면, 9월 2일 고점형성 기준(가정), 10월 7일 전까지 -15~-20% 조정 불가피

- 올해 코로나19 증시 충격 이후, 큰 폭의 가격조정 없이 상승세를 이어나온 미국 증시 모습(20.3.23~9.2, 5.3개월)은 과거 닷컴 버블 활황국면(99.10.19~00.3.10, 4.6개월)과 흡사하다. 현 나스닥 지수가 고점을 형성한 9월 2일(가정)을 기준으로 닷컴 버블 시기 하락폭(-34.2%)과 하락일수(25일, 거래일 기준) 그리고 유동성 변수(M2 증가율: 닷컴버블 6.1% YoY vs. 코로나19 15.5% YoY)를 고려하면, 향후 -15%~-20% 사이 하락폭을 10월 7일 이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 증시 하락폭 -15%(기준 지수: S&P500 3,044P, 나스닥 10,248P, 다우 24,735P) 상회시, 4Q를 염두에 둔 성장주 중심의 공격적 매수 전략 유효 (참고, 표3 언택트 시대 유망 미국 기업)

- 9월 미국 증시는 2000년 닷컴 버블 패턴을 반영해 고점을 형성한 9월 2일을 기점으로 -15% 하락한 기준지수(S&P500 3,044P, 나스닥 10,248P, 다우 24,735P)부터 4Q를 염두에 두고 기존 주도주인 성장주 비중을 적극적으로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비대면 솔루션 수혜를 과점할 기업역량에 시장은 프리미엄을 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성장주 투자는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본문 표3 참고, 언택트 시대 유망 미국 기업).

## 프롭테크 벤처 투자와 IPO 러쉬(rush)

- 프롭테크(PropTech)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부동산 산업에 4차 산업 혁명 기술들을 접목시킨 신산업 분야를 일컫는다.
- 글로벌 프롭테크 벤처 투자 총액은 2015년 44억 달러에서 2019년 101억 달러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 부동산 산업의 밸류체인(value chain)은 투자/자금조달, 개발/건설, 중개/임대, 관리로 나뉘는데, 이 중 중개/임대와 관리 분야가 전체 투자 금액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 벤처 투자 증가와 유니콘의 성장에 따라 기업공개(IPO)를 통한 투자 회수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 최근 3년간은 1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IPO가 늘고 있다. 2018년 미국의 부동산 개발/건설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스마트시트(SmartSheet), 핀란드의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임대 기업 Kojamo가 상장했고 현재까지 200%, 100%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 올해에는 1월 중국의 아파트 임대 플랫폼 Danke Apartment를 시작으로 7월에는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주택 보험 기업 레모네이드(Lemonade), 8월에는 중국의 최대 규모 주택 거래 플랫폼 Beike를 운영하는 Ke Holdings까지 세 개의 기업이 10억 달러 넘는 가치로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 현재 상장이 예정된 기업들 중에서는 콘테크(ConTech, Construction+Tech)라 불리는 개발/건설 분야의 유니콘 기업인 프로코어(Procore)와 데스크탑 메탈(Desktop Metal)이 눈에 띈다.
- 중국의 아파트 임대 플랫폼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됨에 따라 당분간 이들의 상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대 콘테크 유니콘의 상장은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 국내 최대 공유 오피스 기업인 패스트파이브가 7월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주요 프롭테크 기업 상장 이후 주가 추이

기업	국가	상장일	티커	공모가	현재가	상승률(%)
AppFolio	미국	2015-06-26	APPF	\$12.00	\$151.70	1,164
Zillow	미국	2011-07-22	Z	\$16.00	\$83.44	422
SmartSheet	미국	2018-04-27	SMAR	\$15.00	\$48.54	224
Jimoty	일본	2020-02-10	TYO:7082	¥1,000	¥3,030	203
Redfin	미국	2017-07-28	RDFN	\$15.00	\$45.15	201
Kojamo	핀란드	2018-06-15	HEL:KOJAMO	€ 8.50	€ 19.46	129
Ke Holdings	중국	2020-08-13	BEKE	\$20.00	\$45.44	127
Lemonade	미국	2020-07-02	LMND	\$29.00	\$47.27	63
Fangdd	중국	2019-11-01	DUO	\$13.00	\$7.11	-45
Q&K International Group	중국	2019-11-05	QK	\$17.00	\$8.25	-51
Danke Apartment	중국	2020-01-17	DNK	\$13.50	\$5.82	-57

주: 현재가는 09.07 기준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작지만 소중한 가치들



### 김희재

hoijae.kim@daishin.com

### 투자 의견

6개월 목표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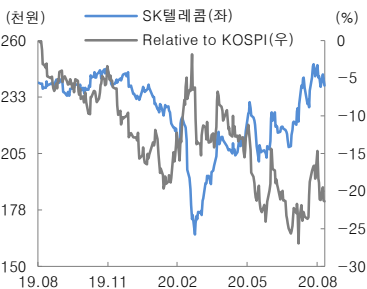
현재주가  
(20.09.09)

**BUY**  
매수, 유지  
**350,000**  
상향  
**238,000**  
통신서비스업중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375.81
시가총액	19,217십억원
시가총액비중	1.41%
자본금(보통주)	4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248,500원 / 165,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914억원
외국인지분율	35.66%
주요주주	SK 외 4 인 26.78% 국민연금공단 12.10%

주기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9	7.7	8.7	0.4
상대수익률	2.9	-0.8	-10.6	-14.6



### 투자 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350,000원으로 9% 상향

- '20E 별도 EBITDA 3.9조원에 EV/EBITDA 4.7배(LTE 도입 초기 3년 '12~14 평균) 적용 후 자회사 가치 합산한 SOTP 기준으로 목표주가 산정

### 작지만 소중한 가치들을 반영할 시점

- SKT의 비통신 매출은 6조원, 비중 36%. 연평균 9%씩 10년간 2배 규모로 성장
- SKT는 New ICT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성공적으로 나스닥에 상장한 나녹스, 양자암호 통신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IDQ, 데이터 기반의 광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인크로스, 2년간 거래액이 2배로 증가한 원스토어 등 작지만 알찬 투자기업들의 가치를 SKT의 기업가치에 반영할 시점

### 나녹스: 클라우드 기반의 헬스케어 기업

- 나녹스(NNOX)는 디지털 X-Ray 기업으로 8/21 나스닥 상장 성공
- 상장시 \$18로 시작 후, 지난 9/8 \$40.9로 2주 만에 2배로 상승, 시총 2.3조원
- SKT 270억원 투자(지분 5.8%,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옵션 보유로 향후 지분 상승 전망). 성공적 해외 투자 사례, 차액 1.1천억원
- SKT의 5G를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 모델로 서비스 확대 전망

### IDQ: 양자암호의 선구자

- 스위스 기반의 양자암호 전문 기업. SKT가 약 700억원 투자, 지분 68.1% 확보
- 글로벌 양자암호 시장은 연평균 38% 성장하여, '23년 5억 달러 규모 형성 전망
- IDQ의 양자암호 기술을 적용하여 서울-대전간 5G, LTE 보안 강화, 뉴욕-뉴저지 구간에 양자암호 통신망 구축, 20.5월 양자암호칩 내재된 갤럭시A 쿼텀 출시

### 투자포인트

- 7월 5G M/S 45.6%, 19.4월 이후 최고. 실적 개선으로 2Q OP 턴어라운드 성공
- 배당상향 전망. 분사 및 자회사 실적에 연동하되, 최소 기존 DPS 10천원 유지
- 자사주 취득. 8/31부터 5천억원 규모 취득 중. 다양한 투자에 활용 전망
- 외인 순매수. 실적 개선과 배당에 대한 확신으로 8월부터 순매수 전환, +1.4%p

###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18A	2019A	2020F	2021F	2022F
매출액	16,874	17,744	19,003	20,708	21,545
영업이익	1,202	1,110	1,288	1,558	1,804
세전순이익	3,976	1,163	1,819	2,724	3,009
총당기순이익	3,132	862	1,415	2,098	2,317
지배지분순이익	3,128	890	1,412	2,098	2,317
EPS	38,738	11,021	17,487	25,979	28,699
PER	7.0	21.6	13.6	9.2	8.3
BPS	278,291	284,310	292,755	309,699	328,910
PBR	1.0	0.8	0.8	0.8	0.7
ROE	15.5	3.9	6.1	8.6	9.0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 자료: SK텔레콤,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현대중공업지주 (267250)

양지환 이자수  
jhwang.yang@daishin.com jane.lee@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330,000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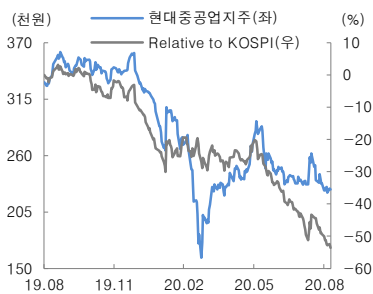
현재주가 223,500  
(20.09.09)

지주업종

4차 산업혁명/안전등급 ■ Neutral Green

KOSPI	2375.81
시가총액	3,531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26%
자본금(보통주)	79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61,000원 / 160,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23억원
외국인지분율	18.49%
주요주주	정몽준 외 6 인 34.34% 국민연금공단 10.79%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3.7	-22.1	-10.8	-33.9
상대수익률	-4.6	-28.3	-26.6	-43.8



## 코로나 이후를 대비 중

### 투자이건 매수, 목표주가 330,000원 유지

- 코로나19로 인한 원유수요 감소 및 유가하락으로 주력 계열사인 현대오일뱅크의 실적 정상화에는 좀 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유가하락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 및 Retrofit 관련 투자도 지연되고 있어 조선 및 글로벌서비스의 수주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
- 정상화의 속도는 지연되고 있으나, 2020년 1분기를 저점으로 현대오일뱅크의 실적은 2분기 흑자전환, 하반기 점진적인 회복 기대
- 현대중공업그룹도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미래 먹거리 준비중
- 현대오일뱅크는 수소생산을 늘리고, 운영중인 주유소의 수소충전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조선해양은 정부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 검토 중
- 배당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배당정책의 변화는 없다는 점 강조

### 컨퍼런스 콜 요약

- [현대오일뱅크] 초중질유 수입 최대한 확대하고 있음. 석유 수요감소로 업황회복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정유사들의 공장 스크랩 등 구조조정으로 코로나 19 이후의 수급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함
- 제품별 2020년 하반기 크랙은 1)휘발유 \$4, 2)납사 \$-1, 3)항공유 \$3~4, 4)경유 \$6~7 수준으로 예상
- 정제마진 정상화 시점은 2021년 3분기로 예상하고 있으나,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존재(코로나19의 종식 시점에 달려있음)
- 수소생산 캐파는 현재 약 30만톤, 실제 생산 22만톤임. 30만톤까지 생산 증대 및 수소 판매채널 확대 계획임. 2025년까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약 80개소 운영, 2030년까지 최대 300개까지 늘릴 계획
- [현대글로벌서비스] 고유황유와 저유황유의 스프레드 축소로 선사들의 친환경 Retrofit 발주 시점은 2020년 4분기 이후로 지연
- 선박환경규제의 초점이 황산화물규제에서 온실가스 및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로 이동하고 있어 이에 맞는 사업 아이템 준비 및 마케팅 중
- 2020년 실적은 기 수주물량으로 인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됨
- [현대로보틱스] Captive 고객 물량 보유, 해외업체들의 경우 국내에 A/S 네트워크 부족으로 당사가 구조적 경쟁우위 보유
- 지금까지는 산업용 로봇 위주였으나, 향후 서비스 로봇, 스마트 로봇 전문 솔루션 보유를 통해 시장 확대해 나갈 계획
- 국내 수요 중심으로 대응해왔으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중국에 JV설립, 유럽에 지사 설립함

####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